

주부신행담

불보살의 가피

철 마다 변화하는 계절따라 올해도 연주암 도반들과 상인사를 거쳐 월정사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사찰은 언제나 든든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곳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추스리는 곳이다.

1971년 봄, 내 나이 26살에 결혼해 2년 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는 세방이 아가씨를 뭍어주시니 남편보고 내려왔다 가리며 성화했다. 주위의 눈치에 주눅이 들더라든 나는 이혼까지 생각했다. 그즈음 다니기 시작한 마을 어귀의 불은사에서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몇달의 시간이 지난 가을 문득,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5월 첫딸을 낳았다.

그 이후 아이를 낳은지 채 한달도 안돼 남편을 따라 칠원으로 이사를 했다. 틈만 나면 애를 업고 심원사에 가 부처님과 스님을 뵈고, 법문을 들었다. 남편도 최정방에서 항상 부처님께 참배를 한다며 자량이 대단했다. 남편은 조금씩 후방으로 근무지를 옮겨갔다. 곧 승진도 했다. 그리고 나는 77년 12월 둘째 아이인 아들을 낳았다. 모든 일이 신타래 풀리듯 순조로웠다.

남편은 다시 소양에서 중령으로 진급했고, 전후방 근무를 마치고 육군본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다. 그해 가을에 접어들 즈음, 애를 아버지는 최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더니 대형 진급심사에 들어갔다며 "아무래도 진급이 안될 것 같으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라며 우울해했다.

나는 늘 하듯 "그래, 부처님께 의지해 보자. 여태까지 어려울 때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 주실거야" 마음을 다잡았다.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목욕재계하고 관음사 도랑으로 가 오백 나한님 앞에 서서 열주를 굴리며 매일 천백씩 7일동안 7천배의 절을 마쳤다. 7일 기도를 마친날 꿈을 꾸었다.

언제나처럼 관음사 부처님께 갔는데 큰 잔치가 벌어져서 신도들이 도랑을

줄거야"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꿈이었던 것이다. 부러부러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일 있을거예요. 잘 다녀오세요"라며 인사를 했다. 남편은 "관세음보살님께 무슨 편지가 왔어?" 너스레를 떨었다. 마음 한편에는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며 위로를 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초조했다.

길고 긴 인생행로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극복 이젠 남편과 함께 회향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식권을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나는 그 틈을 타 화엄성중계 삼배를 올리려는데 하얀 서초를 입신 키 큰 처사가 나타나 나에게 '1000'이라고 쓰인 종이와 '10000'이라고 쓰인 종이를 주며 "식권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다. 나는 화엄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화엄님 옆에 선녀들이 나비모양의 부채를 들고 서 있었다. '앗! 저 분이 화엄님이 시구니' 생각하고 있는데 보살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앞에 공양발 세그릇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밥 안

오후 1시30분,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대령진급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기쁨의 눈물을 말없이 흘리면서 나는 또 한번 입은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남 편은 대형 승진 후 광주 보병학교로 가게 되었다. 남편의 불심은 더욱 깊어져 그곳에서 불교회장을 맡아 매주 일요일마다 군불자법회를 이끌며 포교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딸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 암치백에 긁이 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아 애를 태웠다. 연주대 나한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이불에 한 번씩 찾아 읽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첫 달라고 칭얼거리듯 나 역시도 약사여래 부처님 불당을 끌어안고 어린 증상을 도와 달라며 매달려 마구 흐느껴 울었다.

딸 아이는 학교를 다니며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기를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 고 3이 되면 휴학계를 제출하고 아예 아버지가 있는 광주로 갈 심산이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대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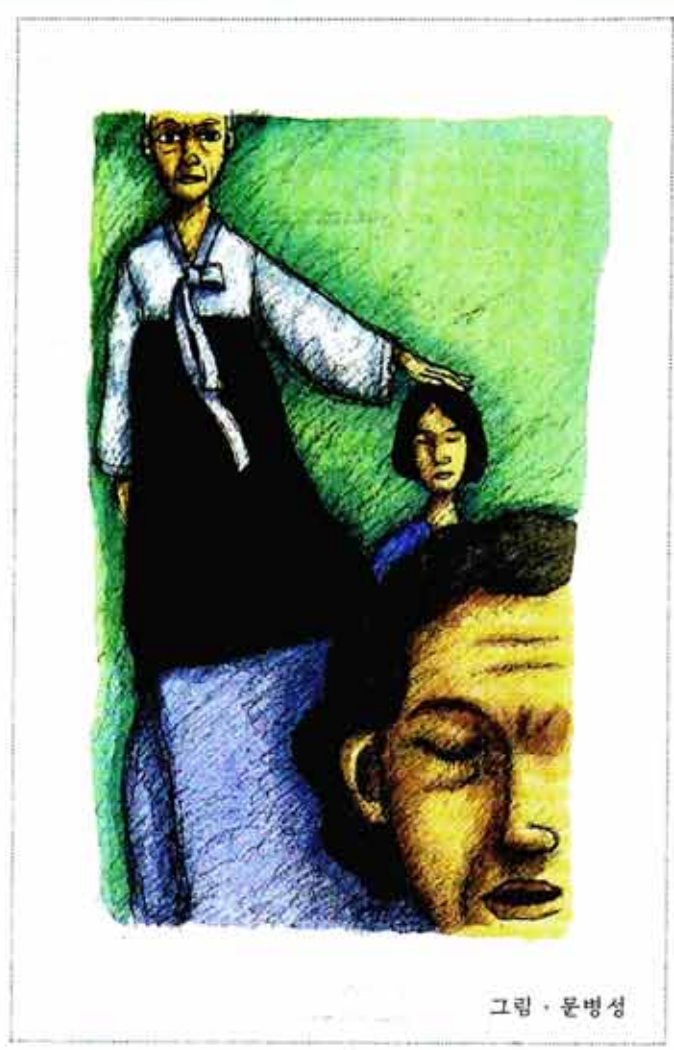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행로 속에 받았던 불보살님의 가피였다.

남편은 올 11월말이면 정년 퇴직을 한다. 나는 과천신도의 연주대 도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회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전에 늘 발원한다.

손불심화(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聖德大王神鍾 에밀레종(국보29호)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중소리

에밀레종의 은은한 중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벤처상품 '사이버 에밀레' 한국방송공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녹음해 둔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중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은은한 중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재질 : 합금
종류 : 청동, 동종, 청동
가격 : 143,000



재질 : 주석
종류 : 개금, 골동
가격 : 200,000



재질 : 합금
종류 : 청동, 동종, 청동
가격 : 143,000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897)

한정 판매

섬세한 목공예 작품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재질 : 홍목(紅木 - Rose Wood, 일명 자단)
북경 조각품 (중국 한자 스님 작품)
원산지 : 중국 남통시(南通市)

본 작품은 각 3점씩 한정판매 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층목탑 - 밑지름 24cm X 높이 71cm
- 반야웅신 - 가로 50cm X 세로 17cm X 높이 55cm


• 가격 : 500,000원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897)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물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식탁 건강속 방식으로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 공명, 아로마, 천연, 약성
세계 최초로 발명 및 상업 운영이 있는 약성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목욕식탁, 여름철 시원한(다나우 방식) 대용
- 커피, 기음, 김치국물을 올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처리
- 직방 방벽으로 사용가능




- 크 44x44x4cm
- 첫 국내산 천연 분말
- 첫 선명표지
- 배타적 미끄럼방지 (무한대-하이오세라믹 처리)

• 가격: ₩9,000

더우십니까? 참선명상 방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인 설계 철선·명상·단련호흡 수련방식
수련서 비록 지혜는 수련에 많은 호제를 준다 영성이 부분적 놀라 하는 것은 인체의 결합과 정신간 영아도 학습과 훈련에 과학적인 무장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명상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방식



- 크기 39x40(cm)

• 가격: ₩27,000

자비보우의 표본 불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총색
- 인쇄 노광인쇄 (컬러)

• 가격: ₩7,000

연꽃 지구촌

다가를 210 불국도를 염원하여 연꽃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100% 이상 주문시 5,500원 단체·사물품 인세제 드림니다.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의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뒷면

200여 가지 주문서 안에 다양한 문양을 드림니다. **• 가격: ₩750(1개)**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지대바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여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팔공산 대지대바 바위굴에 숨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대지대바 바위굴에 숨어 있는 신성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의미와 선행의 상징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물문화재 등 대지대바 바위굴에 숨어 있는 영겁의 미소를 실감하게 된 신인의 흔적 서린 실마리를 실감케 한다.

(제작) 대지대바도덕선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상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웅신 - 30분

• 가격: ₩13,000

장묘로 만든 수평자 그릇 발우



- 제발우(4합) - 가격 60,000원 무게 2.7kg
- 제발우(2합) - 가격 30,000원 무게 1kg

(비행은 바위 불자처럼 빛과 함께)

달마도 손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해인 운주사 선종의 그림을 손금판(99.9%) 위에서 그려낸 액자

개인소지 특색이 있어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제품은 다름니다(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1cm X 32cm
손금판 크기 : 10cm X 15cm
실용인증번호 No 2426 호

• 가격: ₩120,000